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2010년 미국 손해보험산업 진단

- 미국 보험정보원(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, III)의 대표이자 이코노미스트인 로버트 하트윅(Robert Hartwig)은 Insurance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손해보험산업은 앞으로 낮은 투자수익률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나 경기회복에 따른 기회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함.
- 미국 손해보험산업은 최근 허리케인 등에 의한 피해 감소로 보험영업수지 적자가 개선되고 있으나, 투자영업수지는 2008년 50%감소한 이후 2009년에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.
 - 특히 저금리기조의 지속, 금융위기 이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회피 등으로 투자영업수지는 추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회복이 어려워 당분간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.
- 최근 미국경제는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회복속도는 지역별,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, 이에 따라 손해보험 산업에는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보임.
- 하트윅은 GDP 성장률이 소폭 플러스로 전환되고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감소하는 등 경기회복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의 부도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며 경기에 후행하는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함.
 -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, 플로리다, 네바다 주와 같이 금융위기의 충격이 컸던 지역의 경제는 회복이 느릴 것으로 보이며, 텍사스와 같이 천연자원이나 에너지에 특화된 지역의 경우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전망됨.
 - 산업별로는 에너지부문의 전망이 밝아 보이며, 에너지 부문의 성장은 녹색에너지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통적 에너지 부문에서도 보험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 - 또한 하트윅은 손해보험사들이 정부주도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, 달러화 약세로 인해 수출경기가 좋아질 것에 대비해 수출관련 리스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.

(Insurance Journal, 1/12)